

연구논문

베트남 유기농업의 생산자 소비자 연대 사례와 그
시사점*

김기홍 충남연구원

본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관심과 그에 대응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유기농업 실천 농민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유기농산물 인증제도를 대신하여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연대를 모색하고 있는 베트남 유기농업 사례를 통해 그 시사점을 파악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유기농업이 단순히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을 쓰지 않는 농법의 하나라는 협의의 개념이 아니라 환경부하를 줄이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념으로서 지역환경보전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공동체 유지의 기능을 지닌 생산시스템이라는 큰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인증제도의 추진 배경을 설명하는 한편, 유기농업이 추구하고 있는 식품안전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을 알아보고, 식품안전문제가 시장실패의 한 사례에 해당함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해결책으로는 액셀로드(Axelrod)의 라벨(label)과 영역성(territoriality)을 통해 이것이 각각 유기농업에서의 인증제도와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연대를 통한 방법임을 제시하였다.

베트남 유기농업 사례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형태의 영역성의 확장을 살펴보았다. 베트남의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유기농업 실천 농민 단체에서는 인증제도를 대신하는 형태로 참가형 유기인증시스템(Participatory Guarantee Systems)을 도입하여 소비자의 참여를 높이고 있었고,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거

* 본 논문은 충남연구원 기본과제(16GI020)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2015년도 한국농촌사회학회 후기 학술대회에서 저자가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래의 확대 및 유기농업 체험을 통한 투어리즘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소비자와의 연대를 직접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유기농업이 가지는 다양한 가치들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이해와 소통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독자적인 유기농업이 베트남 내에서 자리잡을 수 있음을 현장 사례를 통해 고찰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 베트남, 유기농업, 유기농산물 인증제도, 소비자 연대, 참가형 유기인증시스템(PGS)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들어 베트남에서는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Fibl and IFOAM, 2016), 대도시의 소비자를 중심으로 농산물의 농약 사용에 대한 우려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찾고자 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수입해 온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보장되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2007년 중국에서 수입해온 콩 관련 213개의 샘플 가운데 69군데서 암을 일으키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2008년에는 국내에서도 문제가 된 멜라민 우유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는 1990년대 후반에 먹거리에 대한 큰 파장을 일으킨 광우병 문제도 역시 베트남의 식품안전문제에서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식품위생과 안전에 대한 관심으로 베트남에서는 보건부(Ministry of Health)와 농업농촌개발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가 중심이 되어 생산과정에서부터 제조과정, 식품산업과 푸드 체인 등을 포괄하는 차

원의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이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2010년에는 베트남 식품안전법이 비준되기에 이른다(누엔티 황화-이병오 2011). 이는 국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한국으로 이어지는 수출 시장의 안정적인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한 작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제적인 차원의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과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등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근본적으로는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유기농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실천 농가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유기농업 생산 부문에 대한 기술 및 유기농산물 판매에 대해서는 공적개발지원(ODA) 영역에서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자체적으로 통상적인 시장과 차별화하여 지역의 생산자와 대도시 소비자 간의 신뢰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직접적인 거래를 시도하는 생산자 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베트남에 관한 연구는 민속학 및 인문학적 관점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 들어 국제협력 방면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업부문에 있어서는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논의들이 주를 이루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지역 농업환경에 따른 특성화된 농업현황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며, 이러한 배경에서 농림수산물부는 민간차원의 국제농업교류를 활성화하고 저개발 국가의 농업농촌발전과 식량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농업분야에 특성화된 ODA사업을 추진하고 그 지원 규모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조준형 외 2011; 조준형 2011).

베트남에 대한 유기농업 부분도 역시 연구 논문으로서 국내에 소개된 바 없다. 매년 전 세계의 유기농업 생산 규모에 대한 통계를 발표하고 있

는 스위스의 유기농업연구소(FiBL: Forschungsinstitut für biologischen Landbau)와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gricultural Movement)¹⁾의 보고서(2016)에 따르면, 베트남의 유기농업 규모는 2014년 현재 유기농업 실천 생산자 수는 2,7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²⁾, 면적으로는 43,007헥타르로 집계되었다²⁾. 베트남의 유기농업 생산 면적은 아시아에서 중국과 인도,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다음인 7번째에 해당하며, 이는 베트남 전체 농업 면적의 약 0.4%에 달한다. 이 수치는 2013년과 비교하면 약 14.7% 증가한 것으로 2011년부터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농업 부문 이외에 수산업의 경우는 총 면적이 20,030헥타르로 나타났으며 채집(농산물을 포함하여 과일과 버섯, 너트 등이 포함됨)은 2,200헥타르로, 이를 모두 포함하는 총 면적은 65,237헥타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농업을 통한 주요 생산 품목은 차와 향신료, 정류(essential oils) 등으로 주로 수출용으로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베트남의 유기농업 규모만으로는 베트남의 유기농업 실천농가는 농가당 평균 15.8헥타르의 면적에서 주로 수출용 차와 향신

1)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은 세계 유기농업 운동의 국제적인 연대조직으로서 1972년 파리 근교에서 설립되어 2016년 현재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800여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2) 이 수치는 베트남 PGS 그룹과 국제협력 관련 NGO 등에 의한 집계로 추정되는 수치를 FiBL과 IFOAM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자료로서 이를 통해 베트남의 유기농업 규모를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인증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유기농업 실천 농가 수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편으로는 인증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각 지역 상황에 따라 혹은 농민의 선택에 따라 반드시 인증을 통한 유기농업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유기농업의 규모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는 게 유기농업 분야의 통계가 가지는 한계이다. 현실적으로는 자신이 하는 농업의 방식이 유기농업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유기농업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도 상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료, 오일을 유기재배하고 있다는 것 외에 어떠한 실상도 알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과 그에 대응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유기농업 실천의 움직임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례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 그 시사점을 밝혀내고자 한다. 특히 제3자 기관에 의한 인증제도에 대신하여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관계 맺기를 통한 소비자 연대를 중심으로 한 실천 노력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론적으로는 그 가운데서도 특히 식품안전과 관련한 문제를 유기농업과 대응하여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어떠한 측면에서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3년 6월, 2014년 2월 및 12월에 걸쳐 세 차례에 이루어진 베트남 유기농업 실천 사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³⁾. 공간적 범위로는 베트남의 커피산지인 유명한 부온마투오티(Buon Ma Thuot)와 중부지역의 후에시(Hue)와 호이안시(Hoi An)로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베트남의 유기농업 실천 농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천 농민의 면담을 중심으로 한 현장 사례 연구로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유기농업 개념과 인증제도

3) 베트남에 대한 현장 사례 조사는 동경대학 동양연구소 범아시아경제연구실의 연구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부온마투오티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2008년부터 시작되어 베트남에서는 호치민국립대학의 베트남과 동남아시아 연구센터의 연구 협력으로 실시되었다.

유기농업은 일반적으로 ‘3년간 화학적으로 합성된 비료와 합성농약을 쓰지 않은 토양에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법의 하나로 이해되고 있지만 이는 유기농업이 가지는 좁은 의미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유기농업은 보다 큰 의미로는 환경부하를 줄이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키워드로 지역환경의 보전과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를 통해 단지 생산자만이 아니라 소비자와 지역의 주민이 함께 하는 공동체 유지의 기능을 지닌 생산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넓은 의미의 유기농업은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운동과 학교급식, 투어리즘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활동, 재래종자 보전활동과 공정무역(fair trade), 슬로우푸드(slow food)와 로하스(LOHAS: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등 다양한 활동들과 연계하여 전개되고 있다.

유기농업의 역사는 190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찍이 산업화를 경험한 유럽과 미국에서는 화학적 투입재로 인한 토양 손실의 우려에서 유기농업이 시작되어 지력 유지와 유기적인 순환을 중심으로 하는 유기농업 실천이 강조되어 왔다. 이러한 유기농업은 크게 영국 출신의 하워드(Albert Haward, 1879~1947)에서 미국의 로데일(J. I. Rodale, 1899~1971)로 이어지는 흐름과 오스트리아 출신의 슈타이너(Rudolf Steiner, 1861~1925)에 의한 두 가지 조류로 나누어지며, 유기농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후루사와 古沢, 1984; 야스다 保田, 1985; 구보타 久保田 2005, 2008).

일본에서는 1950년대 이후 산업화로 인한 각종 공해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농업부문에 있어서는 1960년대에 들어서 농업기본법 제정(1961년)으로 선택적 확대가 이루어져 기계화 및 농약과 화학비료의 확대, 축산의 집단화와 규모확대 등 농업이 구조적으로

근대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와타나베 渡辺, 1984; 다나카 田中, 1984; 다베타 多辺田, 1984). 이러한 산업화 및 근대화의 폐해에 대해 의식있는 학자들과 의사, 농민들이 중심이 되어 유기농업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면서 일본유기농업연구회(1971년)가 발족되었고, 한편 자연스럽게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소비자 단체는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생산자 단체를 찾아다니며 직접 제휴(TEIKEI)의 형태로 연대하면서 일본 유기농업을 구체적인 모습으로 발전시켜 나가게 된다.

국내의 경우는 1970년대 중반 농민 스스로가 지력 훼손과 농약으로부터의 안전 문제 등에 대해 우려하면서 농민 단체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유기농업이 시작되었다. 1990년대 후반이 되면서 유기농업을 포함하는 친환경농업이라는 개념으로 국가 정책을 중심으로 한 발전을 꾀하게 된다. 이러한 친환경농업정책의 목표는 정은미(2006: 129)가 지적하듯 농업이 실현해야 할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렇듯 유기농업은 산업화와 근대화에 대한 폐해에서 대응하는 형태로 자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그 목표 또한 각 지역마다 다양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전까지 각 지역별로 진행되어오던 유기농업은 세계적으로는 1990년대 중반 코덱스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국제식품규격)를 중심으로 인증에 대해 논의되기 시작되어 통일된 규격화의 틀 안에 놓이게 된다⁴⁾. 이와 관련해서는 인증제도가 유기농업에 대한 이념을 포

4) 코덱스위원회란 소비자의 건강보호와 식품의 공정한 무역확보 등을 목적으로 1962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및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설치된 국제적인 기구로 국

팔하기보다 세계적인 규격화를 통해 유기농산물 수출시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니시오 西尾, 2005; 마스가타 栴瀨, 2008).

일본의 경우에는 1980년대 후반 유기농업의 급작스러운 성장으로 인해 발생한 가짜 유기농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1990년대 초 정부를 중심으로 인증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JAS(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법에 의한 유기인증제도가 성립함에 따라 제3자에 의한 인증을 받지 않으면 유기농업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증제도가 근본적으로는 유기농업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니어서 농가의 부담만 가중시키면서 농민들은 1970년대 소비자와의 연대를 중심으로 한 제휴방식으로 회귀하기에 이른다. 현재에도 인증을 받는 그룹과 인증을 받는 대신에 소비자와의 제휴를 도모하는 그룹의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발전하고 있다. 2011년 일본 농림수산성에서는 처음으로 유기JAS 인증을 받지 않고 있는 유기농가 실태 조사를 전국 규모로 실시했는데 그 결과, 인증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제휴 방식을 통해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가는 8천호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다니구치 谷口, 2012). FiBL and IFOAM(2016)에 의하면 2014년 일본의 유기농업 실천 농가는 2,130호에 그치고 있다⁵⁾.

한편 국내에서는 유기농업을 포함하는 친환경농업이 국가 주도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1992년 농산물품질제도에서 1993년 농수산물공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유기, 무농약재배 농산물의 품

제식품규격을 작성하고 있다.

5) 참고로 FiBL and IFOAM(2016)에 의하면 2014년 국내 유기농업 실천 농가수는 11,633호로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수치와 일치하고 있다.

질인증이 실시되었고 1996년부터 저농약재배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이 이루어졌다. 1997년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제정 후 기존의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제도에 신고제도를 더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다 2003년에 인증제도로 일원화되었다. 제3자에 의한 인증제도는 직불제의 실시와 함께 마을 및 지구 단위의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정책적 지원의 근거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지자체의 성과주의를 조장하는 수단이 되어 2014년에는 언론을 통해 가짜 유기농 필지 등 인증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거론되기도 하였고, 그 결과 인증의 강화라는 또 다른 제제의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2016년에 발표된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5개년계획에서는 2017년부터 인증업무를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히 이양하는 것을 기조로 ‘인증 강화’를 위해 민간인증기관의 등급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부실 인증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제도의 문제를 제도로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용성을 가져올지는 미지수이다.

2. 식품안전문제와 생산자 소비자 간 거리

유기농업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는 크게 자연환경의 보호와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으로 나누어짐을 앞 절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그 가운데 안전한 먹거리와 관련된 식품안전문제는 근본적으로 그 원인을 농업과 먹거리와의 ‘거리’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거리를 줄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직접 만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거리를 줄이는 여러 가지 수단을 활용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되겠다.

농업의 거리의 문제는 농업 생산과 관련된 영역이 세분화 및 전문화되면서 생산과 가공 과정이 분리되기 시작한 것에 있다. 결국 이러한 농산

물과 농식품이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영역 사이에서 발생한 ‘정보의 비대칭’ 문제라고 하겠다. 먹거리의 외부화는 더욱 더 이러한 농업과 먹거리와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빠르게 외부화된 것은 식재의 조달과 안전성의 확인이다(나카시마 中嶋, 2004a: 25). 다시 말해 먹거리 문제를 타인에게 맡기게 된 것이다. 정보의 비대칭은 안전과 품질 등 식품에 관한 정보가 불완전하게 제공되어 소비자가 최적의 구매행동을 하기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도쿄야마 · 에가이즈(時子山 · 荏開津)는 푸드시스템의 복잡화에 의해 소비자가 먹거리와 관련한 문제에서 멀어지게 되어 소비자의 지식이 부족하게 된 것을 ‘정보의 불평등성’(도쿄야마 · 에가이즈, 2005: 174~175)이라고까지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시장메커니즘의 실패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시장이 가격 정보에만 주목하고 비시장적 정보에 대해서는 경시해 온 결과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과 관련해서 하라(原, 2002: 53)는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가격은 희소자원의 분배라는 기능만이 아니라 배분된 곳에서의 이용효율에서도 강한 영향을 미친다. 완전경쟁시장이론은 가격 메커니즘이 유효하게 기능하는 전제로서의 시장형성이 안고 있는 곤란한 문제를 대부분 경시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밖에 없고, 또 가격이 가지는 선발, 인센티브 부여라는 중요한 기능을 무시하고 경제적 희소성에 관한 시그널 기능만을 과대평가한 이론이라고 결론지어도 좋겠다”고 하였다⁶⁾.

6) 이는 상품의 품질과도 관련이 있는데 계약 전에 존재하는 속성과 관련한 것을 감추어진 지식(hidden knowledge)이라고 하고 이것이 불완전할 경우 역선택이 일어나게 되므로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시그널, 즉 품질인증과 표시제도 등의 활용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계약 후에 존재하는 정보는 감추어진 행동(hidden act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불완전할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이러한 시장의 실패와 관련하여 나카시마(2004b)는 식품안전에 관한 대책도 역시 시장에만 맡겨서는 장애가 일어나고 시장실패를 불러온다고 지적하고 있다. 식품안전관리에 관해서 “사업자의 자주성에만 맡겨서는 만전을 기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다는 위생안전수준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악질기업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배제하는 것은 어렵고, 정직하게 위생안전대책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라도 대책 수준은 불충분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나카시마, 2004b: 55). 이는 김홍주(2012: 181~182)의 지적과 같이 “생산 및 유통과정에 대한 실제적인 통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생산업자와 유통업자의 양심에 맡기고...여기에서 담합과 부패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먹거리에 대한 신뢰수준은 낮아진다”고 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도 바로 정보의 불완전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서 품질에 관한 특성상 사전, 사후 모두의 경우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신용재’⁷⁾에 대한 위해를 막기 위해 공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나카시마, 2004b: 56~63)⁸⁾. 이에 대한 조치가 정부에 의한 각종 표시제도 및 인증제도

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하라, 2002: 51-52; 니시무라 西村 1996: 182-183).

7) 소비자의 품질의 인지가능성에 대해서는 탐색재, 경험재, 신용재와 같은 세 가지 패턴이 있다. 탐색재라는 것은 사전, 사후 양방향에서 품질이 확인가능한 것이고, 경험재라는 것은 사전에는 알 수가 없으나 구입한 이후에 품질확인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신용재라는 것은 사전에도 사후에도 품질은 확인할 수 없으며 상품을 신용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그 가운데서도 식품의 신용재적 특성에 의한 위해로서는 잔류약품을 들 수 있다(나카시마 2004b: 58-59).

8) 식품안전대책에 관한 시장실패의 원인으로서 그 외에도 경쟁의 결여(독점)가 있는데 ‘식품위생법’의 마련 등 다양한 규제가 정비되었다. 또 외부효과에 의한 무임승차 문제가 있으며, 고도의 위생관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관계하는 부문 간에 비용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재로서의 안전대책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는 보완적인 방법은 미국의 경제학자 액설로드(Axelrod)가 제시한 ‘라벨(Label)’에 해당한다⁹⁾. 라벨이란 성별이나 피부색과 같이 행위자(player)가 지니는 고유의 특징으로 상대 행위자가 미리 관측가능한 것을 말한다. 액설로드는 같은 속성을 가진 라벨이 모여서 평판이 되고 그러한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규칙을 정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액설로드, 1987: 153-162). 여기서 말하는 평판(Reputation)이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전에 다른 대상과 함께 했을 때 그가 어떠한 전략을 취했는지를 다음 상대가 알게 될 때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규칙(Regulation)이란 정부와 피지배자간의 관계를 말한다(액설로드, 1987: 150-152)¹⁰⁾.

이와 대비하여 액설로드가 또 하나의 시장 실패의 극복 방안으로서 제시한 것이 ‘영역성(Territoriality)’이다¹¹⁾. 영역성이란 행위자가 타인과 원만하게 다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자와 잘 지내는 경우에 발생한다. 상호구조의 다른 성질로서 거론한 영역성에는 다시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지리적인 것으로서 물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공유되는 공간적인 측면을 일컫는다¹²⁾. 또 다른 하나는 행위자의 특징을 나타내는 추상적인 공간을 말하여 물리적으로는 떨어져도 형성될 수 있

9) 영역성은 Territoriality의 한글 표기로 대신하였으나 Label은 대신할 만한 적절한 한글 표기를 찾지 못하고 라벨이 주는 의미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원어 그대로 표기하기로 하였다.

10) 액설로드는 협조를 진화시키는 요인으로서 언급한 네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11) 액설로드는 협조관계를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기 위해 반복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임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되갚기’(TIT FOR TAT)라고 하는 호혜주의를 바탕으로 한 전략이 우승한 것에 주목하여 협조관계의 조건을 밝혀냈다.

12) 예를 들어 참호전에서 보이는 죽이거나 혹은 죽이지 않거나 하는 방식은 전선의 어디에선가 시작하여 가까운 지역을 통해 점점 더 전해져가게 된다.

는 성격을 지닌다(엑셀로드 1987: 165)¹³⁾. 그렇지만 영역성의 경우에도 평판을 통해 영역성의 범위는 확대될 수 있으며, 이러한 영역성이 자신만의 라벨로 발전해갈 수도 있다. 이러한 라벨은 하나의 독자적인 브랜드가 되기도 한다. 식품안전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에는 바로 이러한 두 가지 방향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라벨’에서 시작한 ‘규제’를 선택할 것인가 혹은 물리적인 공간과 추상적인 공간을 포함하는 ‘영역성’을 이용하는가 하는 것이다.

3. 유기농업과 생산자 소비자 간 신뢰관계

이러한 라벨과 영역성의 문제를 유기농업과 관련시켜보면, 라벨은 유기농산물 인증제도에 해당하여 정부의 제도적 기반 하에 인증을 받음으로써 안전하게 생산된 유기농산물임을 표시하여 먹거리의 ‘안전성’을 보장받게 된다. 영역성의 경우는 인증제도와 같은 표시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의 신뢰관계와 같은 영역을 활용하게 된다. 여기에는 다시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지역’에 더욱 밀착하는 방법이 있다¹⁴⁾. 이와는 또 다른 하나는 추상적인 공간으로서의 영역성으로서 물리적으로는 가깝지 않지만 유기농산물이라는 매개를 통해 안전과 지역환경보전이라는 공통된 가치를 추구하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이러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제휴하는 형태의 ‘산소(産消)제휴’ 운동을 중심으로 유기농업이 발전해왔다. 이러한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유기적 관계를 통한 유기

13) 여기에는 음료수 회사 간이라든지 정치색이 같은 후보 간에 가지게 되는 추상적인 영역을 의미한다.

14) 이를 저자는 박사학위논문(2009)을 통해 ‘지역밀착형’ 유기농업이라 불렀다.

농산물 거래 방식은 단순히 거래를 떠나 인간적인 신뢰관계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일본 유기농업운동을 대표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영역성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관계에서 시작하여 각 유기농업 단체나 유기농산물 전문 유통 단체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라벨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것이 평판이라는 요소를 통해 다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견고하게 만든다¹⁵⁾. 이것은 송인주(2016: 69)가 “먹거리에 대한 적절한 정보의 제공이 ‘착한 소비’를 고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식품의 생산유통을 촉진할 수 있다”는 지적과 일치한다. 독자적인 라벨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안정적인 평판을 얻기 위해 유기농업단체는 해당 단체의 유기농업에 관한 정보를 발신하거나 소비자 견학 등으로 교류를 활발히 해나가게 된다. 또한 제3자 기관에 의한 인증 등도 라벨을 강화하는 수단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국내 유기농업을 포함하는 친환경농업의 경우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만 하며, 라벨 가운데서도 법률을 바탕으로 한 완전한 규제에 의한 발전 과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증을 받은 농산물 간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로컬푸드나 꾸러미와 같은 직거래, 학교급식 등 지역의 소비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영역성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제3자에 의한 인증 자체에 대한 회의로 참가형 유기인증시스템(PGS: Participatory Guarantee Systems)과 자주인증제도 등 인증을 보완하는 형태의 대안을 찾고자 하는 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영역성의 근간이 되는 신뢰관계란 무엇일까.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의 노력이 지역의 환경을 보전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15) 일반적으로 우리는 특정 생협을 나타내는 라벨만으로 지금까지의 해당 생협에 대한 평판으로 통해 그 생협을 신뢰하게 된다.

소비자는 이렇게 생산된 유기농산물을 구입하게 된다. 또 일반적으로 인증을 받은 라벨에 대한 신뢰보다 생산자와의 ‘얼굴과 얼굴이 보이는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안전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믿게 된다. 이것을 생산자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라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김태완·김철규(2016: 145)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상품에 대한 신뢰는 직매장 관리에 대한 신뢰와 생산농가에 대한 신뢰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후자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한편 소비자에 대한 생산자의 신뢰란, 생산자가 소비자를 믿기 때문에 장기 계약을 맺고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 다양한 정보발신이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보다 싸고 보다 품질이 좋은 농산물이 이웃 농가에서 생산된다 할지라도 ‘이러한 소비자’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자신의 농산물을 계속해서 사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생산자가 농산물을 계속해서 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하타노(波多野 1999: 39-40)는 “유기농업의 생산방법은 환경변동의 영향을 받기가 쉽고 작물의 생육적기에 대한 제약이 크기 때문에...재배포장의 상황에 맞춘 생산 및 출하체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조건을 이해하는 소비자의 존재에 있다”라고 하였고, 이러한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유기농업의 다품목 연중재배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안·야스다(安·保田 1998: 61-62)는 이와 같이 소비자의 제휴관계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다품목생산으로 안정적인 생산유지’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에 의해 연대 관계는 유지된다. 다음 장에서는 최근 유기농업이 시작되고 있는 베트남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증을 대신하기 위한 노력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와의 연대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III. 베트남 유기농업 사례 연구

1. 참가형 유기인증시스템의 활용: 부온마투웃의 니코니코 야사이 농장

1) 생산 현황

베트남의 최대 도시인 호치민(Ho Chi Minh)에서 북동쪽으로 약 300 킬로미터 떨어진 닥락성(Dak Lak Province)의 부온마투웃시에 위치한 니코니코 야사이 농장(NICONICO YASAI: ‘웃는 채소’라는 의미, 이하 ‘니코니코 농장’)은 총 1,500평의 유기농업 직영 농장과 4개의 제휴 농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니코니코 농장은 일본인 대표 1명과 일본인 스태프 1명, 베트남 현지 스태프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30~40여 종류의 채소를 재배하고 있으며, 매일 15~20여종의 채소를 출하하고 있다. 대표인 시오가와 미노루(33세) 씨는 2005년에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으로 NPO 활동을 통해 5년간 일본어 강사로 참여하면서 베트남으로 오게 되었다. 이후 일본의 유기농업 실천 농장에서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젊은 베트남인들을 지원하는 일을 맡으면서 농업 관련 일을 시작하였다. 2010년에는 300평 규모의 토지를 빌려 직접 유기농업을 실천하게 되었다. 이러한 생산과 동시에 판매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다 대도시인 호치민을 중심으로 판로개척에 나서게 된다. 그러던 중 NPO 강사 활동 시절에 함께 했던 베트남 젊은이들이 모여면서 함께 2011년 11월에 니코니코 농장을 설립하게 되었다.

채소 종자는 기본적으로는 지역의 종묘상에서 구입하고 있는데 태국

등 인근 국가에서 생산된 종자도 동네 종묘상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일본 산 고구마의 경우도 베트남에 보급되어 있어 종자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 화학비료를 대신하는 유기질 비료는 처음에는 시범적으로 계분(鷄糞)을 사용했는데, 닭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항생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을 그만두었다¹⁶⁾. 그 대신에 쓰기 시작한 것이 카사바 잎을 먹고 자라는 누에의 분(糞)이었다. 이것을 카사바 잎과 섞어 양질의 비료로 사용했는데 양잠공장이 폐업하면서 농장 내에서 자급이 가능한 방법을 택하게 되었다. 현재는 농장에서 돼지를 기르기 시작하여 돼지 분뇨를 퇴비로 숙성시켜 사용하고 있다.

병해충을 막는 방법으로는 살충제로서 식초와 소주, 마늘, 고추 등을 섞어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을 사용하고 있다.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에서는 님(neem)이라고 하는 살충성분이 강한 허브에서 추출한 엑기스를 사용하기도 한다. 님 나무도 농장에서 직접 길러 조달하고 있다. 또 그물터널을 만들거나 채소에 천을 덮는 방법을 통해 근본적으로 병해충을 차단하고 있다. 일본에서 농업 연수를 받은 베트남 스태프들이 직접 고안해낸 방법이다. 이를 통해 현재는 안정적인 생산기반이 마련되어 가고 있다.

2) 협동 농장

16) 국내 사례에서도 자원순환시스템을 위해 축산업과 연계한 유기적인 퇴비만들기 등을 제안하고 있으나 유기축산이나 무항생 축산이라는 인증을 거치지 않으면 유기퇴비로 인정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실질적으로 유기농업 실천 농민의 경우 인증 여부의 문제를 떠나 항생제 사용으로 인해 관행농업에 의한 잔여물을 이용한 퇴비사용은 꺼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니코니코 농장은 부온마투웃에 소재하고 있는 직영 농장 이외에도 인근 생산자들과 네 군데에서 협동 농장 형태로 공동 출하하고 있다. 유기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의 증가로 호치민을 중심으로 한 판로가 확대되면서 생산규모를 늘려야 하게 되어 주위의 참여 농가들이 늘어나면서 제휴형태의 구조를 만들게 되었다. 기본적으로는 유기농업에 대한 인식부터 자재에 이르기까지 협의를 거쳐 공통된 방식의 유기농업을 실천해가고 있다. 같은 부온마투웃에서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후이(Huy) 씨는 2012년 3월부터 노지 1헥타르에서 브로콜리, 가지, 커리플라워, 오이 등을 재배하고 있다. 이웃 농민인 돈(Dong) 씨는 비닐하우스 등 자재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 토마토 재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2012년 5월부터 유기재배를 시작했다.

탄(Thanh) 씨는 림동성(Lam Dong Province)의 다랏(Da Lat)시에서 종묘상을 운영하다가 회사법인을 설립하여 노지 6헥타르와 하우스 2,000평에서 유기재배를 하고 있다. 유기농업에 관한 농업기술은 일본 JICA(국제협력기구)의 지원 사업 중 하나로 실시된 기술이전 과정에서 전수받게 되었다. 다랏 지역은 베트남 유수의 채소 산지로 시설하우스 재배를 기본으로 농약을 사용한 관행재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관행 농업의 농약 산비 문제나 농업용수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유기농업을 실천하기 위해 일반 채소재배 산지와는 멀리 떨어진 산 쪽으로 장소를 정하고 유기농업을 시작했다.

이외에도 지역 가톨릭 성당이 운영하는 농장 역시 협동 농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역 가톨릭 성당에서는 학교를 다니기 어려운 아이들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성당 내에서 거처하게 하고, 공부하는 환경도 만들어주면서 학교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 교육적인 차원에서 유기농장을 개설

하여 아이들에게 직접 농사짓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유기농업에 대한 기초적인 재배기술은 대표인 시오가와 씨가 직접 지도하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된 유기농산물은 우선적으로 성당 내에서 자급하고, 남은 것은 니코니코 농장 브랜드로 호치민시에 판매된다. 2012년에 이어 2014년 2월과 12월에 방문했을 때는 이미 안정적인 유기농업 생산이 가능한 수준에 달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지역의 유치원을 대상으로 자급자족을 위한 유기농업 지도를 시작했는데 생산된 유기농산물은 유치원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로서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남은 것은 상품으로 판매도 가능한 상태이다.

3) 판매 형태

니코니코 농장은 여러 방식을 통해 유기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유기농산물에 관심을 보인 곳은 호치민시의 패밀리마트였다. 2012년 6월부터 납품을 시작으로 2014년 12월 현재 6개의 패밀리마트와 개인이 경영하는 유기농 전문 매장 5개 등 총 11개 점포에 공급하고 있다. 또 하나의 판매 형태는 택배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판매이다. 회원등록을 통한 인터넷 주문 방식과 주 1회 정기적으로 택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의 방식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약 120명으로 그 가운데 60여명이 꾸러미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한 박스에 베트남 동으로 180,000VND(10,000VND이 약 500원으로 약 9,000원 해당)이면 7-8품목의 채소를 받아볼 수 있다. 후자의 정기적인 택배 방식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약 40명이다.

택배의 원칙으로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한다. 정해

진 택배시간을 준수할 것, 신선도가 떨어지지 않게 할 것, 제3자에 위탁하지 않고 자사의 직원이 배달할 것 등이다. 특히 신선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채소의 배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신선한 채소가 배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오후 3시에서 5시에 호치민 시내에 거주하는 소비자에게만 배달하는 것으로 하며, 농장에서 운송차가 사고 등에 의해 늦어질 경우에는 반드시 미리 연락을 취하고 있다. 대금은 물품을 수령할 때 배달 직원에게 직접 지불하는 것으로 하는데,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 번에 지불해도 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소비자와의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 달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채소의 정기적인 구입과 관련해서는 배달 정지를 요구받을 때까지는 자동으로 갱신하는 것으로 하며, 일정 기간을 쉴 경우에는 이를 전까지 통지한다. 한 달 이상을 쉴 경우에는 다음에 받는 날짜를 미리 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호치민 시내의 배달 권역이 교외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거리에 따른 운송비 지불을 실시하고 있다. 5km 이내에는 20,000VND(약 1,000원), 10km 이내는 30,000VND(약 1,500원), 15km 이내는 40,000VND(약 2,000원)이고, 15km가 넘는 경우에는 개별 소비자에게 양해를 구한 범위 내에서 합의하여 지불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유기농 채소 가격은 베트남 관행 재배 채소 가격과 비교하면 세 배 정도 비싸며, 이는 일본의 일반 채소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다. 주로 호치민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외국인, 베트남 부유층에게 판매하고 있다. 지금까지 3년간 채소 가격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그 동안에 베트남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물가 상승으로 인해 관행 재배 채소와 가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그 덕분에 베트남 소비자의 구매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니코니코 농장은 최근 소비자와의 적극적인 교류에 힘쓰고 있다. 판로와 유통경로에 어려움을 겪던 초기부터 소비자와의 관계를 중시해왔으며 얼굴과 얼굴이 보이는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일환으로 결성된 ‘채소를 먹는 소비자 모임’은 농장 측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CSA(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활동의 측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호치민의 유명한 요리인이 함께 하여 요리 실습을 통해 유기농산물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있으며, 다양한 소비자들 간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적 차원의 소비자 프로그램으로 자신만의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이것이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신뢰관계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니코니코 농장에서는 3개월에 한 번씩 소비자 모임을 주최하여 부온마투옷 농장 방문 등 현지 견학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유기농산물 수요의 증가로 유기농업 생산에 참여하는 농가수도 늘어나 생산 과정의 안전성 문제와 관련하여 농민 스스로 관리에 대한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또 소비자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제3자에 의한 유기농업 인증제도를 대신하여 소비자와 농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참가형 유기인증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인증에 필요한 기록 관련 업무와 인증비용 등이 따로 들지 않아 농가의 직접적인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가 참여하여 생산기반 및 환경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관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4) 베트남의 참가형 유기인증시스템(PGS)

베트남 정부가 농업농촌개발부를 중심으로 유기인증제도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2006년으로, 2009년부터 국가인증제도를 대신하는 제도로서 참가형 유기인증시스템을 도입해 왔다. 베트남의 참가형 유기인증시스템은 유기농업 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시작되었다¹⁷⁾. 베트남의 유기농업 발전 프로젝트(The project of Organic Agriculture Development)는 덴마크의 NGO 단체인 ‘덴마크 아시아 농업개발(ADDA: Agricultural Development Denmark Asia)’과 베트남 농민조합(VFNU: Vietnamese Farmers’ Union)이 함께 조직하여 수도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 북부 지역에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에 걸쳐 실시해온 사업이다. 현재 하노이에는 29개 농가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농가는 기존 소득에 비해 50%~100%가 늘어나는 등 경제적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서 2012년에는 우수 농가 선발 지원 프로젝트도 실시하여 안정적인 유기농업 생산 지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Vietnam PGS, 2013).

2012년 유기농업 발전 프로젝트 종결 이후에는 베트남 IFOAM이 중심이 되어 독자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3년 현재, 3개의 내부 단체가 조직되어 있으며 북부 베트남을 중심으로 29개 생산자 단체의 229명의 회원들이 23.7헥타르에서 참가형 유기인증을 받고 있다(Vietnam PGS, 2013). 베트남의 참가형 유기인증시스템이 추구하고 있는 공동의 가치로는 상호신뢰, 투명성, 협력과 상호책임, 개발, 건강한 먹거리로부터의 건강한 생활, 농업에 대한 이해 등이 있으며, 베트남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

17) 베트남 IFOAM(<http://www.ifoam.bio/en/pgs-vietnam>)

한 원칙으로 제시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참가형 유기인증시스템은 2004년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이 소농들에게 인증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3자에 의한 인증을 대신하여 마련되었다.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은 2004년 제17회 세계대회 및 총회에서 처음으로 소농을 위한 ‘대안적(alternative) 인증제도’로서 참가형 유기인증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고, 다음 해인 2005년에 참가형 유기인증시스템 TF 팀을 구성하여 이념과 방법, 현황 등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면서 큰 주목을 받게 된다(구보타, 2012: 50).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이 제시하는 참가형 유기인증시스템의 중요한 요소로는 ‘공통의 비전의 공유’, ‘참가형’, ‘투명성’, ‘신뢰에 기반을 둔 유기성이 유지되는 어프로치’, ‘지속적인 학습과정’, ‘대등성’이 있다.

베트남 참가형 유기인증시스템은 일반적인 농장 관리와 유기적인 작물 생산, 유기적인 축산과 가공 및 취급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생산자 매뉴얼(2009)에 의하면 생산자는 농장 경영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 및 경작하는 모든 필지 정보에 대한 사항을 지도 작업과 함께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유기인증에 위한 교육의 여부 및 용수 및 자재 등에 대한 기록은 물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활동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농가가 기입한 정보에 대해 참가형 유기인증시스템에 참여하는 멤버들은 각 항목에 맞추어 현장에서 검증을 실시하게 된다. 그 결과에 따라 유기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언 사항을 기입하도록 한다.

기존의 인증제도와 다른 점은 일방적인 검사의 입장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인증에 참여한 멤버들은 유기재배와 관련한 상담과 컨설팅을 동시

에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 농가의 유기농업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학습을 기반으로 5명 이상의 생산자 모임이 결성되면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와 지역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내부단체(The Inter-Group)에서 인증 작업을 하게 된다. 실제로 인증을 부여하고 내부단체 전체를 관리하는 역할은 PGS 조정단체(The PGS Coordination Group)가 담당하게 된다. 이를 통해 소통이 가능한 참여 과정이 조성되며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서로를 이해하는 기능이 달성된다.

2. 소비자 직거래의 강화: 후에시 호아차우(HOA CHAU) 농장

호아차우(HOA CHAU) 농장은 후에시 중심가에서 차로 약 30분 떨어진 곳에 소재하고 있다. 후에시는 베트남 중앙부인 투아티엔후에성(Thua Thien Hue Province)에 위치한 도시이다. 호아차우 농장에는 모두 5세대 17명이 단체 멤버로 참여하고 있고, 그 외에 50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방문한 농장은 면적 약 7헥타르의 규모에 12명이 함께 유기재배를 하고 있는 곳으로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을 받고 있다¹⁸⁾.

호아차우 농장의 리더인 딘(Dinh, 51세) 씨는 2002년부터 쌀을 생산해오다 2003년부터 관행재배로 채소를 지어왔다. 이후 유기농 채소 재배로 전환하게 된 이유는 생산자의 건강은 물론 소비자의 건강도 지켜야겠

18) 농산물우수관리제도는 농약과 중금속, 미생물 등 위해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기준치에 부합하는 적정 사용과 일지 작성을 통한 적정 관리의 측면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업과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그러나 베트남을 비롯하여 태국에서는 유기농산물 인증제도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안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 무렵 베트남 정부와 지역 대학인 후에농업대학의 지원으로 유기농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었다. 베트남 정부는 유기농업 기술과 관련해서 식물방역부(Plant Protection Department)의 주도 아래 병해충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다. 현재 합성 농약 대신에 유기자재를 사용하고 있지만 유기인증을 취득한 것은 아니다. 화학비료를 대신해서는 밭에서 남은 채소들을 태워서 유기질 비료로 사용하거나 미생물을 이용한 유기질 비료를 쓰고 있다.

재배하고 있는 유기농 작물로는 다섯 종류의 허브와 일곱 종류의 엽채류, 세 종류의 향신료 등이 있다. 더위를 피해 아침 3시부터 10시까지 작업을 하고 있으며 저녁에는 다음날 출하하는 채소 포장 작업을 하게 된다. 유기농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힘든 일은 물 관리라고 하는데, 파이프로 약 7미터 지하에서 끌어올린 물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동시스템을 도입해서 물 관리가 쉬워졌다.

가까운 곳에 후에라고 하는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판매에는 어려움이 없다. 주요 판매처로는 대형 슈퍼와 호텔, 레스토랑, 지역 유치원 등이 있다. 매일 아침 6시 반에 납품하고 있으며 남은 농산물은 직접 방문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유기농산물 가격은 관행 채소보다 15% 정도 비싸다. 최근 베트남에서도 소비자들이 자신들이 먹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과 품질을 스스로 확인하고자 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으며, 그러한 움직임이 소비자들을 직접 농장까지 찾게 한다. 매일 적어도 다섯 명의 소비자들이 꾸준히 농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그렇게 해서도 남게 된 농산물은 가까운 곳에 있는 재래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3. 투어리즘을 통한 도시민 교류: 호이안의 차쿠에(Tra Que) 농장

베트남 중남부 꽝남성(Quang Nam Province)의 호이안시는 중남부 최대 도시인 다낭(Da Nang)에서 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남중국해 연안에 위치해 있다. 인구는 약 9만 명으로 바다와 강으로 둘러 쌓여있어 어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한 시간 거리에 다낭공항이 있고 호이안의 구시가지는 199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관광객의 약 80%는 외국인이다. 그 중에서도 차쿠에(Tra Que) 마을은 오래된 유기농업 재배 지역으로 유명하며 체험관광농장으로서 찾는 관광객이 많다. 투어리즘으로서도 활용이 가능한 유기농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차쿠에 마을은 호이안 도심에서 차로 약 20분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약 200년 전부터 농업을 해오던 지역이다. 좋은 자연환경 여건 덕분에 대대로 토지를 가진 세대들이 많았다고 한다. 이 마을에는 전부 40헥타르의 농지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유기비료를 사용한 다양한 종류의 채소들을 재배하고 있다. 판매처는 호이안 시내나 다낭시내에 있는 호텔과 레스토랑 등이다.

매니저인 티엔(Thien, 37세) 씨에 의하면 유기농업 체험을 위해 방문하는 관광객은 시즌인 10월부터 3월 사이에는 하루 평균 200명이 넘는다고 한다. 농가와 직접 만나 지역의 채소를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것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다. 그 기저에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높은 관심이 자리 잡고 있으며 농장에서 생산된 채소로 만든 허브티나 전통적인 약재 등을 구입하는 고객이 많다. 매년 1월과 2월에는 농업관계자들이 주최하는 농업축제가 행해지는데 요리 컨테스트 등을 통해 함께

요리하면서 생산자 및 도시민 간 교류를 확대해가고 있다.

이러한 채소 재배 지역에 대한 관광 상품 프로그램은 2002년부터 시작되었다. 호이안 지방 정부는 4개의 마을을 대상으로 투어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해왔다. 그 중 하나가 농업지구인 이 마을이었다. 기존에 흩어져 있던 농지를 2개소로 집중시켜 각각 8헥타르와 7헥타르로 나누어 농사를 짓게 했다. 전 세대 150명 가운데 농민으로서 참여하고 있는 수는 18명이다.

이 지역은 오래 전부터 농약을 쓰지 않고 전통적으로 농업을 행해오던 곳으로 오래도록 지역에서 전해져 오는 방식으로 유기적인 퇴비 사용과 병충해 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기본적으로 작물이 서로 자라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작은 공간을 몇 구간으로 나누어 확보해두고 다양한 채소를 재배하고 있다. 이것이 병해충에 대한 방제 대책이 되고 있으며, 한 구간에서 병충해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구간 사이에 공간을 두기 때문에 다른 구간으로 감염될 걱정이 없다. 오랜 유기농업의 실천으로 토양의 상태는 매우 비옥한 편으로 화학 비료를 대신한 유기질 비료도 농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만든 것을 사용해오고 있다.

IV. 베트남 유기농업의 생산자 소비자 연대의 시사점

1. 여전히 인증은 필요한가

베트남에서는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대와 농민 스스

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유기농업으로 전환해가는 농민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산된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생산되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확인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유기농산물 인증제도는 유기농산물의 안전을 인증 받아 안심하고 농산물을 제공받기 위한 소비자측의 요청에 의해 시작되거나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수단으로서 도입되고 있다.

그러한 수단으로서 베트남의 농민들은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을 선택하거나 재정적으로 여력이 있는 농가 단체는 유럽의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고 있다. 베트남에서 국가인증을 대신하고 있는 참가형 유기인증 시스템은 북부인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중부 이남의 지역에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인증에 대한 고민이 깊은 농가 단체가 하노이까지 가서 인증 방법에 대해 배워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부온마투옷과 호이안 지역에서는 인증제도의 도입을 위한 단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니코니코 농장 대표 면담).

베트남의 부온마투옷의 니코니코 농장의 경우에는 유기농업 실천 농민들의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생산자들의 생산에 대한 규칙과 생산된 유기농산물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에서 인증제도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즉 농가 간의 자기 규제(regulation)의 측면에서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인증제도를 모색하던 가운데 찾아낸 것이 참가형 유기인증시스템이다. 국제적인 인증기관을 통한 제3자 기관에 의한 인증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인증제도를 선택했지만 농장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함께 검토해가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이는 생산자만이 아니라 소비자와 지역의 농업관계자들이 인증과정에 함께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단지 인증제도를 통해 생산 과정을 규제하는 측면이 아니라 자신만의 소비자를 확보하고 지역의 이해를 높이는 노력과도 연동된다. 이는 김홍주(2012)가 지적하듯이 “이미 만들어진 구조적 신뢰보다 만들어가는 관계적 신뢰, 대인신뢰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과 일치한다. 실제로 유기농업을 통해 화학비료와 합성농약 대신에 어떠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사짓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함께 확인해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유기농업적인 방법으로 농사짓는 것에 대한 이해와 소통이 이루어지게 된다. 즉 라벨과 영역성이라는 이분법을 넘어 라벨의 확보로 자신들만의 영역성까지 확보해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유기농업 생산 기반을 형성해갈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연대를 통해 제3자 기관에 의한 유기인증제도에 대신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베트남에서 살펴본 참가형 유기인증시스템은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의 제도를 베트남의 실정에 맞게 도입한 것으로, 국제유기농업연맹은 전 세계적인 보급을 통해 소농에게 인증의 부담을 줄이고 유기농업의 가치인 생태계 보전과 장기적인 경제적 지속성, 그리고 사회적 공정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유하는 형태를 지향하고 있다.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인증에 관여함으로써 양자 간 신뢰와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일본에서도 인증제도 대신에 소비자와의 제휴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일본유기농업연구회가 참가형 유기인증시스템의 활동을 확대해가고 있으며 인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소농 중심의 아시아 국가에서도 참가형 유기인증시스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유기농산물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인 유기인 증제도는 이를 통해 유기농업이 가지는 본래의 다양한 가치를 이해하고 소통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는 ‘안전한 농산물’이라는 성능 중심의 품질 정보에만 집중하여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환경과 인권, 노동 등에 대한 배려를 통해 ‘윤리’적인 가치를 중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나카시마, 2004b). 즉 도상국의 아동 노동의 억제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위한 공정무역(Fair trade)이나 상품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등은 이러한 윤리 개념에 중점을 둔 경제 활동이다.

이러한 윤리적 요소의 여부는 인증제도에 따라 달라진다. 커피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인증제도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생산 환경에 대한 배려나, 노동자의 노동 조건 및 최저 생활에 대한 지원 등 많은 다양한 요소를 인증의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윤리적 요소는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다른 상품과 차별화하는 수단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영국을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윤리적 소비(Ethical consumerism)는 환경보호와 동물 복지(Animal welfare), 인간적 권리(Human rights) 등 윤리적 요소에 관심을 두는 소비구매행동을 촉진한다. 유기농업도 이러한 윤리적인 요소를 추가하는 작업을 통해 인증제도를 보완하는 형태로 소비자의 연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인증과정 자체에 대한 소비자와의 연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소비자와의 신뢰관계 강화와 다양한 가치의 실현

한편 인증을 받는 대신에 일본의 제휴와 같이 직접적으로 소비자와 관계를 맺는 방법이 가능하다. 제도를 대신하여 소비자가 가끔 직접 농장을 방문해서 화학비료와 합성농약 없이 농사를 짓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주기적인 농사 소식지(뉴스레터)를 통하여 농사법에 대해 확인할 따름이다. 이는 인증 제도를 벗어나 소비자와 연대하는 방법이라고 하겠다.

부온마투웃 니코니코 농장의 경우 주 판매 지역인 호치민에서는 유기농업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소비자 모임이 형성되어 생산지 현장 투어가 이루어지는 등 생산자와의 교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가 다양한 형태의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유기농산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요리인과 함께 하는 요리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CSA(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지역공동체 지원 농업) 차원의 성격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때 커뮤니티란 일반적으로 공동체가 형성 가능한 범위인 지역, 즉 로컬(local)이라는 물리적인 영역성을 넘어서 추상적인 영역성을 의미한다. 즉 호치민을 중심으로 하지만 유기농산물을 매개로 하여 도시의 소비자가 지역의 생산자를 지원하는 넓은 의미의 커뮤니티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일본유기농업의 초창기 제휴운동과 비슷한 형태라고 하겠다.

후에의 호아차우 농장의 경우는 지역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는 사례를 보여주었다. 근교에 큰 소비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판로에는 문제가 없지만 지역에서 직접 농장을 찾아오는 단골 고객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 현장 방문이 가능한 공간적 범위를 활용하여 소비자가 직접 농장에서 생산된 유기농산물을 눈으로 확인하여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얻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와의 신뢰를 쌓아가게 된

다. 이것이 물리적 공간의 범위인 ‘지역’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이러한 농업 생산이 지역의 자연환경과 소비자 자신의 삶의 환경을 지켜내는 하나의 유력한 수단이 된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세계적으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를 줄이고 직접 만나는 과정을 통해 연대를 구축해 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유기농업은 1970년대 초반 안전한 농산물을 매개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얼굴과 얼굴이 보이는 제휴’를 추구해왔고 현재는 보다 지역에 밀착한 형태의 다양한 제휴 관계가 일본 유기농업의 큰 축을 이루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CSA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고, 프랑스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AMAP(Associations pour le Maintien d'une Agriculture Paysanne: 농업과 농민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이, 스위스에서는 ACP(Agriculture Contractuelle de Proximite: 생산자와 소비자 근접 계약 농업) 등 다양한 형태의 생산자 소비자 간 연대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니코니코 농장의 경우 호치민에서는 부온마투웃의 지역을 지지하기 위해 소비를 포함하는 적극적인 소비자의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부온마투웃 지역에서는 아직 안정적인 소비처가 확보되지 못한 상태이다. 유기농업 생산에 대한 가치가 지역의 소비자에게는 이해되고 소통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지역의 가톨릭 성당이나 유치원 내 농장 운영 지원 활동이 늘어나면서 유기농업에 대한 이해가 지역에서 확산되어 지역의 지지를 얻어내는 요소로 자리 잡혀가고 있다. 이것은 니코니코 농장의 유기농업이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의 어린이와 학생들의 건강까지 책임지고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가치를 지니며, 지역의 소비자들을 유기농산물에 대한 관심으로 유도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활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지원의 성격으로 시작하게 되었으나, 성당이 소유하고 있는 농장의 자립적인 경영과 유치원의 자급자족적 생산을 통해 그 역할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를 계기로 지역에서의 유기농업 생산 확대의 측면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호이안의 차쿠에 농장의 경우에는 생산 활동과 함께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투어리즘으로 활용되어 소비자 및 도시민에게는 농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생산자에게는 농업에 대한 자긍심을 불어넣어주고 있으며, 지역에는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기여하고 있다. 한편 아직 지역 소비자와 주민에게는 이러한 농장의 역할이 충분히 홍보되고 이해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한계를 지니지만, 니코니코 농장과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먼저 지역 내에서 부각시켜 지역민의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베트남에서 보여지는 유기농업의 실천은 지역의 환경보전과 먹거리 안전, 자급자족적 생산에 대한 지원 및 지역의 취약층에 대한 지원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동, 윤리적 소비, 지역활성화 등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유기농업 발전의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유기농업이 추구하고 있는 다양한 가치들의 실현을 이루어내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해와 소통의 과정을 통해 베트남 내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독자적인 유기농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아직 인증제도를 완벽히 대신할 만한 소비자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지역의 이해가 부족한 점도 발견되지만 시작에 불과한 단계에서 이러한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발

전 가능성에 더 큰 점수를 주어도 될 것이다.

V. 맺으며

최근 베트남에서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베트남의 각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자체적인 형태의 유기농업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온마투옷의 니코니코 농장과 같이 생산과 함께 판로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후에의 호아차우 농장이 나 호이안의 차쿠에 농장의 사례처럼 이미 가까운 곳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시작하는 곳도 있다. 공통적으로는 ‘안정적인’ 소비자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인증제도의 도입이라는 라벨의 구축을 위해 참가형 유기인증시스템을 활용한다든지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을 받는 방법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동시에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자신만의’ 소비자 확보를 위한 영역성의 확장을 위해 다양한 CSA 활동과 투어프로그램의 확충 등을 통해 소비자 교류를 활발히 해 나가고 있다.

이미 호치민의 패밀리마트와 유기농산물 전문 매장을 중심으로 여러 농장의 다양한 유기농산물이 판매대에 오르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 안전한 농산물을 원하는 소비자는 지금까지는 시판되는 유기농산물의 한정된 물량으로 인해 매장에 나와 있는 유기농산물을 선택의 여지없이 구입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유기농산물의 공급으로 이제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소비자에게도 패밀리마트에서 자신이 구입하고 있는 유기농산물이 지역의 생산

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여 인증의 과정을 거친 참가형 유기인증 라벨임을 확인함으로써 일반 유기농산물과 구별하여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농산물의 구입을 통해 생산에 대한 지지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해당한다.

먹거리 안전성과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베트남 내의 유기농산물에 대한 수요와 그에 대응하는 공급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베트남에서도 안전한 유기농산물이라는 것만으로는 소비자에게 어필하기 어려운 유기농산물 간 경쟁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유기농산물 시장은 이미 유기농산물 간 경쟁의 시대로 접어든지 오래이다. 이제는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유기농산물 가운데 소비자는 보다 차별화된 것을 선택하게 된다. 한살림이라든지 녹색마을이라든지, 이마트라든지 하는 판매처의 신뢰까지도 고려하게 되어 농산물의 품질이 곧 판매처의 품질 및 신뢰와 연결되어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소비 측면에서는 윤리적 소비 즉 상품 안에 담겨있는 가치에 초점을 두는 착한 소비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판매처의 신뢰를 농가 스스로가 담당하고자 하는 꾸러미와 같은 직거래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유기농업 인증마크를 넘어서 그 무언가가 존재해야만 ‘나만의’ 소비자 확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것이 지속가능한 유기농업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이제 유기농업의 시작 단계에 있다. 국가차원의 공적인 규제를 통한 인증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베트남의 유기농업 실천 농가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증을 대신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기본적으로는 농민들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공적개발지원 차원에서 유기농업 기술에 대한 지원이나 판로 확보에 대한 생협, 실천 등 국내 정보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면 베트남과의 민간차원의 활발한 교류는 물론 안정적인 베트남 유기농업의 정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전혀 알려진 바 없는 베트남의 유기농업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례 연구가 베트남 전체 유기농업을 대변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지니지만 이를 통해 유기농업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이미 다양한 형태로 소비자와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된다. 국가 주도 아래 이루어진 인증 기반의 국내 친환경 농업은 지난해 저농약농산물 인증의 폐지와 함께 급격히 줄어들었다. 저농약에서부터 무농약, 유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발전 전략은 이미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애초부터 유기농업의 이념과 철학이 부족한 상태에서 양적 성장에 중점을 둔 결과라고 하겠다. 지속가능한 유기농업의 발전은 유기농업에 대한 가치의 이해가 생산자와 소비자 양자 간에 공유되어 진정한 의미에서 서로를 지지할 때만이 유지될 수 있다. 베트남의 사례로 이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때이다.

[2016년 11월 23일: 접수, 2016년 12월 19일: 수정, 2016년 12월 30일: 게재확정]

참고문헌

- 김태완·김철규, 2016. “지역먹거리 운동 조직과 농민 생활의 변화: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농촌사회』, 26(1): 117-156.
- 김홍주, 2012. “먹거리 신뢰의 구조적 특성과 영향요인 분석”, 『농촌사회』, 22(1): 173-214.
- 누엔티 황화·이병호, 2011. “베트남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의 현황과 과제”, 『강원 농업생명환경연구』, 제23권제1호,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송인주, 2016. “먹거리문제의 해법으로서 녹색소비주의: 식품라벨 활용과 먹거리 대안소비의 관계를 중심으로”, 『농촌사회』, 26(1): 67-115.
- 정은미, 2006.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정책의 전개과정과 성격”, 『한국유기농업학회지』, 14(2): 117-137.
- 조준형, 2011. “베트남 농업환경 및 작물생산현황 조사”,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23(3): 265-275.
- 조준형·장혜리·임종민·이석영·김완석, 2011. “베트남 람동성의 농업현황 및 한-베트 ODA 농업협력사업 전략”,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23(5): 465-474.
- 波多野豪(Hatano, Takeshi), 1998. 『有機農業の経済学: 産消提携のネットワーク』, 日本経済評論社.
- 原洋之介(Hara, Younosuke), 2002. 『開発経済論』, 岩波書店.
- 古沢広祐(Hirosawa, Kouyu), 1984. “日本の有機農業運動”, 玉野井芳郎・坂本慶一・中村尚司編, 『いのちと“農”の理論』, 学陽書房.
- 久保田裕子(Kubota, Yuko), 2005. “有機農業運動の展開と産消提携の拡大”, 『前後日本の食料・農業・農村 第9巻 農業と環境』, 財団法人農林統計協会.
- _____, 2008. “『天地有機』と東西の有機農業運動の源流”, 『国学院経済学』, 56(3-4): 179-215.
- _____, 2012. “グローバル経済下の有機農業‘提携’運動: IFOAMにおけるPGSとCSAの出会い”, 『社会科学論集』, 136: 47-60.
- 桝潟俊子(Masugata, Toshiko), 2008. 『有機農業運動と<提携>のネットワーク』, 新曜社.
- 松木洋一(Matsuki, Youichi)·루드·히울네(R. B. M. Huirne)編, 2007. 『食品安全経済学—世界の食品リスク分析』, 日本経済評論社.
- 中嶋康博(Nakashima, Yasuhiro), 2004a. 『食品安全問題の経済分析』, 日本経済評論社.

- _____, 2004b. 『食の安全と安心の経済学』, コープ出版.
- 西村和雄(Nishimura, Kazuo), 1996. 『ミクロ経済学』, 岩波書店.
- 西尾道徳 (Nishio, Michinori), 2005. 『農業と環境汚染』, 農山漁村文化協会.
- 多辺田政弘(Tabeta, Masahiro), 1984. “国家大の発想から等身大の発想へ”, 玉野井芳郎・坂本慶一・中村尚司編, 『いのちと“農”の理論』, 学陽書房.
- 田中学(Tanaka, Manabu), 1984. “アニマルファクトリーから有機農業へ”, 玉野井芳郎・坂本慶一・中村尚司編, 『いのちと“農”の理論』, 学陽書房.
- 谷口吉光(Taniguchi, Yoshimitsu), 2012. “有機JAS認証を取得していない有機農家の動向に関する一考察: 『有機農業基礎データ作成事業』, をもとに”, 第13回日本有機農業学会大会個別報告.
- 渡辺善次郎(Watanabe, Jenjiro), 1984. “もう一つの日本農業”, 玉野井芳郎・坂本慶一・中村尚司編, 『いのちと“農”の理論』, 学陽書房.
- 保田茂(Yasuda, Shigeru), 1985. “有機農業の系譜とわが国の特徴”, 『神戸大学農業経済』, 19: 1-17.

- The ADDA-VNFU Organic Agriculture Project, 2009. PGS: Participatory Guarantee System of Organic Products Operational Manual for Producers
- FiBL and IFOAM, 2016. The World Organic Agriculture: Statistics and Emerging trends 2016. Frick and Bonn
- Robert Axelrod, 1984.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Basic Books, Inc., Publishers, NewYork
- Vietnam PGS, 2013. Internal Newsletter

Abstract

A Case Study of Affiliation between Producers and Consumers
based on the Organic Agriculture in Vietnam and its Implications

Kim, Kihueng

This study aims to elucidate the activities of organic farmers for food safety concerns, and to investigate implications of organic agriculture in Vietnam through the affiliation between producers and consumers instead of organic certification system during the field study.

Usually organic agriculture indicates farming methods of growing products without using chemical fertilizer and agricultural chemicals more than three years. However, organic agriculture has more broad meanings. It is a holistic system which promotes and enhances ecosystem, health, food safety and local environment, etc. And also it emphasizes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producers and consumers.

Theoretically food safety issues are dealt with one of the market failures and Axelrod has suggested two approaches of label and territoriality as the solution. Furthermore the empirical case studies on organic farmers' groups in Vietnam have comprehended the expansion of the territoriality which indicates the direct solidarity between producers and consumers. In central Vietnam, some organic farming groups attempted to have the bilateral relationship by implement of the Participatory Guarantee Systems and the application of the agritourism with farming experiences despite of the third organic certifica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utual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on

between the producers and consumers is the key value for the future of Vietnam's organic agriculture with which diverse practices can be evolved.

Key words: Vietnam, Organic Agriculture, Organic Certification System, Affiliation, Participatory Guarantee Systems

김기홍은 일본동경농업대학 졸업(2003) 후 동경대학대학원 농업자원경제학전공에서 『유기농업의 역할과 과제: 한국과 일본의 비교연구』로 박사학위(2009)를 취득하였다. 일본학술진흥재단 외국인특별연구원(2009-2011)과 동경대학 동양문화연구소 특임연구원(2011-2014)을 거쳐 현재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한국과 일본, 태국,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하는 유기농업 및 농촌, 농업연구이다. 최근 저서로는 『Solidarity Economy and Social Business(공저, 2015)』, 『連帶經濟とソーシャルビジネス(공저, 2015)』, 『有機農業がひらく可能性(공저, 2015)』가 있다.

E-mail: kihuengkim@gmail.com